

“강추위보다 일감 없는 게 더 무서워요”

코로나 장기화·강추위 속 인력중개사무소 가보니

갑작스런 한파에 일용직 채용 ‘하늘의 별 따기’ 겨울철 인력시장 비수기 생계 걱정 ‘막막’ 토로

“매섭게 부는 바람보다 빈손으로 돌아가야 하는 현실이 더 춥게 느껴지네요”
17일 오전 5시20분 광주 북구 신안동 소재 A근로자 대기소.

한파 특보가 내린 이날 새벽 다양한 연령층의 남성들은 질겨 깔린 어둠 사이로 몸을 잔뜩 움츠린 채 인력사무소 안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갑작스레 닥친 매서운 추위에 경량 패딩과 장갑, 귀마개 등으로 중무장한 행인과는 달리 얇은 바람막이 하나에 몸을 맡긴 일용직 근로자들은 자판기 커피로 몸을 녹이기 바빴다. 몇몇 근로자들은 사무실 한구석에서 간단한 스트레칭으로 얼어붙은 몸을 풀기도 했다.

대기소 내 소파와 의자의 빈공간이 하나둘씩 채워지면서 남성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대기소 소장의 호명에 촉각을 곤두

세웠다. 일감을 배정받은 이들은 하나둘씩 자리를 떠났고, 대기자들의 얼굴은 초조한 기색이 짙어졌다. 휴일에는 일감이 적어 자칫하면 오늘 하루를 공칠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선데 달린 격으로 갑작스레 한파가 닥쳐 건설현장 특성상 콘크리트 작업 등이 어려워 우선적으로 선발되는 기능공이 아닌 일반 근로자들의 표정은 더욱 어두워졌다.

이러한 근로자들의 마음을 읽기라도 한 듯 대기소 소장은 도심·시의 현장을 가리지 않고 근로자들을 보낼 곳을 찾기 위해 동분서주했다.

그러나 소장의 호명에 좀처럼 이어지지 않자 일감이 마땅치 않음을 직감한 듯한 50대 남성은 “오늘은 쉬고 내일 다시 오겠다”며 인사를 나눈 뒤 매서운 바람이



17일 새벽 광주 북구 소재 A근로자 대기소에서 일용직 근로자들이 호명을 기다리고 있다.

/인재영기자

부는 바람으로 휩쓸려 발걸음을 옮겼다. 간만에 이곳을 찾았다는 30대 남성도 인력이 현장에 도착해야 하는 오전 7시 직전까지 사무실에서 간절히 호명을 기

다했지만 결국 다음을 기약하고 집으로 돌아갔다.

이처럼 갑작스런 한파 특보에 일용직 근로자들은 일자리를 찾지 못해 발걸음

돌리는 등 겨울철 생계 걱정에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송주찬(60) A근로자 대기소 소장은 “건설현장 특성상 일이 고정된 것이 아

니라 장기계약직을 제외한 근로자들은 매일 새벽 이곳에서 일감을 기다린다”며 “최근 현장에서 코로나19 등을 우려해 백신 접종 완료자나 기능공을 우선적으로 찾아 일반 근로자들의 근로 환경이 어려운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장에서도 젊은 사람을 선호하니 이가 드신 근로자분들의 경우 일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다”며 “다가오는 겨울철 비수기에는 일감 자체가 크게 줄어 건설 근로자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50대 남성은 “코로나19로 일이 많이 줄어 매일 아침 마음 졸이며 인력사무소에서 호명을 기다린다”며 “날이 갑자기 추워져 몸이 고단해 하루 일과 고민돼도 나갈 수 있을 거라는 기대에 매일 아침 인력사무소에 나온다”고 속내를 밝혔다.

끝내 호명 받지 못하고 내일을 기약한 채 귀가한 60대 남성은 “특별한 기술이 없어 일반 근로직으로 생계를 이어가다 보니 부르는 곳이 적어 일주일에 삼일 이상은 공치고 있다”며 “날이 추워지면 이보다 부르는 곳이 더 적을 텐데 일을 하지 못하고 무기력하게 귀가하는 날들이 이어질까 걱정”이라고 무거운 삶의 무게를 하소연했다.

/인재영기자

송선태 5·18조사위원장 “발포 명령 중요 진전”

사망자 숫자 수정 불가피 전망...조사결과 내년 말 대국민 발표 예상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송선태 위원장은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광주시민을 겨냥한 발포 명령과 관련해 중요한 진전이 있다고 밝혔다.

지난 15일 국감에서 송 위원장은 조사 진전 상황에 관한 질의에 “특별법상 의결 전 사전발표 금지 규정 때문에 확인 조사 중이라는 말씀밖에 드릴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하급장교나 발포를 직접 행한 병사들까지 아래로부터의 조사가 충실히 돼 증거가 쌓이고 있다”면서 “자위권 발동 등을 결정한 회의체의 실제, 참여자, 회의내용을 점점 확인해 들어가고 있다는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고 밝혔다.

1995-1996년 검찰 수사 당시 인정되지 않은 부분과 관련해 “지회는 정황 증

거나 기타 서류 증거를 통해서도 입증 가능하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또한 “암매장과 관련해 직접 참여했다는 60여명이 있고 장소와 숫자도 구체적 증인이 있었다. 사용된 화기도 이제까지 밝혀진 바와 다르다”며 “사망자 숫자도 근본적인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송 위원장은 “현재 확보된 유골과 행방불명 신청 가족들의 유전자를 대조하면서 다소간 (기존 알려진 내용과 다른) 변화도 조심스럽게 전망한다”면서 “사안 자체가 매우 진전되고 있지만, 이 자리에서 소상히 밝히기는 의결 전이라 어렵다”고 말했다.

5·18 진상규명 특별법 37조는 조사 내용

을 위원회의 활동 종료와 최종 보고 이전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관계부처와의 협조는 잘 되고 있느냐는 물음에는 “협조는 매우 원만하다”면서도 “40년간 침묵하고 부정하고 왜곡했던 분들의 입과 가슴은 열리지 않고 있어 조사에 가장 큰 장애가 되고 있다”고 토로했다.

송 위원장은 아울러 “5·18조사위의 1차 대면조사 대상인 신군부 중요인물 5명 중 당시 특전사령관 정호용이 조사에 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면서 “나머지 4명도 최대한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나머지 4명은 당시 직책으로 전두환 국군 보안사령관, 수도경비사령관 노태우, 계엄사령관 이희성, 육군참모차장 황영시다.

조사 결과의 대국민 발표 시점에 대해

서는 내년 말로 예상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이 5·18 진상조사 완결 및 최종 결과 보고 이전에 내용을 공개해서는 안 된다는 특별법 규정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설훈 의원은 “진상 규명이 무엇이 된 것이냐는 국민들의 의견이 있다. (새로운) 상황이 생길 때마다 국민에게 보고하고 있는 그대로 발표해야 한다”며 법규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송 위원장은 “다른 과거사 청산 정부위원회와도 발표 시기와 내용에 관한 법 규정이 상당히 다르다”면서 “5·18 조사위원 전원위원회 의결을 거친 뒤 공표하게 돼 있는데, 지난번 법 개정 시 문제 제기 있었으나 개정이 안 됐다”고 답했다.

/조태훈기자

‘방역위반·금품비위’...전남경찰 국감서 질타

고령·농촌 인구 특성 고려 맞춤형 치안 정책 촉구

전남경찰청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경찰관들의 방역지침 위반과 금품 비위에 대한 질타가 잇따랐다.

지난 15일 국감에서 국민의힘 이영 의원은 올해 4월 전남 경찰 간부 4명이 정 부 지침을 어기고 골프 회동을 한 점을 지적했다. 당시 나주경찰서 서장관 간부 3명은 연차 휴가를 내고 영암의 한 골프장에서 골프를 쳤다.

정부가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4월26일부터 5월2일까지를 특별방역 관리주간으로 지정하고 공무원들의 불필요한 회식·모임을 금지했던 시기였다.

이 의원은 “이 기간 간부들이 골프 친 자체도 문제지만 전남경찰청만 4월28일 에야 공문을 일선 서에 전달한 것도 문제”라며 시스템 점검을 주문했다.

김재규 전남경찰청장은 공문을 신속하게 전파하지 못한 점을 인정하며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같은 당 김용관 의원은 수사 정보를 유출하고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 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재판에 넘겨진 안도경찰서 B경위의 사례를 들었다.

김 의원은 “절대다수 경찰은 훌륭하

지만 일부가 그런 행태를 보인다”며 “수사권 조정에 따라 직원들 사기 올리는 방안을 고민하면서 이런 부실도 잘 짚어야 한다”고 말했다.

전남경찰의 치안 성과에 대한 칭찬도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의원(광주 북구 을)은 전남 경찰이 지난해 전국의 주요 내비게이션 시스템 회사 6곳과 최초로 협약을 맺고 바뀐 도로 교통 정보를 바로바로 제공한 점을 적극 행정 사례로 꼽으며 이러한 정책을 확대해달라고 당부했다.

의원은 고령·농촌 인구가 많은 특성에 맞춰 노인 배회 방지 보급률을 높이고 농산물 절도 예방책 마련 등 맞춤형 치안 대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민주당 오영훈 의원은 전남의 보이스 피싱 피해가 한 해 450여건 규모로 늘어났다며 예방책을 당부했다.

서영교 위원장은 은행을 사칭한 특별 신용보증 대출, 질병관리본부를 사칭한 백신 예약 인증, 행정안전부를 사칭한 국민지원금 신청대상자 알림 피싱 메시지 등을 보여주며 수법이 진화하는 보이스 피싱을 예방하기 위해 홍보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동수기자

‘수사 누설’ 경찰관에 ‘사건 청탁’ 전직 경찰 추가 구속

수사 기밀 유출 혐의로 구속기소된 광주경찰청 경찰관에게 사건 청탁을 시도한 전직 경찰관이 추가로 구속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박민우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5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직 경찰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A씨는 후배 경찰관이던 B경위가 광주경찰청 광역수사대에 근무할 당시 맡았던 사건 관계인으로부터 1억원 안팎의 청

탁성 금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광주지검은 앞서 공무원 비밀누설, 직무유기,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B경위를 구속기소했다.

B경위는 동료 경찰관이나 지인에게 수사 상황을 유출하고, 자신이 수사했던 지역주택조합장에게 검사 출신 변호사를 알선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은 사건 수임 청탁과 관련해 B경위의 고교 선배인 변호사 사무장 C씨도 함께 불구속기소했다.

B경위가 사건을 목撃했다는 의혹을 받는 D씨, 경찰·변호사 인맥을 내세워 브로커 역할을 한 의혹을 받는 재개발사업자 E씨도 구속해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

/김동수기자

TIME CITY

명품시계수리전문점

명품브랜드 시계 수리전문점 타임시티 (TIME CITY)

- | 책임 A/S
- | 명품 쿼츠 시계 수리전문
- | 오토매틱 수리 전문
- | 스위스, 독일 시계 수리장비 최다보유 (A/S센터와 동일장비 보유)

광주 광산구 첨단강변로 100 (쌍암동 695-1)

영업시간 평일 10:00 - 20:00 공휴일·토요일 10:00 - 18:00 일요일 휴무

문의 010-8475-5472 * 근무시간에만 통화가능

늦으시면 앓타하십시오

급매 전문

[돈되는 상가]

- 나주시 용산동 가족놀이 테마공원(10만평) 입구 4차선 대로변 제1층 주거지역대지2,281㎡(690) 단층건물 937.52㎡(283.6) 매가:9억5,000 ***대형음식점,농산물직판장,휴게소종합매장 최적
- [나주시 대호동 동신대역 비주택 원룸]**
- 자연녹지 3,467㎡ 2층 건물 3동 룸60개
- 급매8억 ***월1,000만원 수익 가

급히 구합니다 --- 손님 다수 대기중입니다

- 병원신축용량 1,000㎡ 내외
- 월세 및 투자용 상가 건물 10억~50억
- ***부동산 무엇보다 연락주시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급매전문 **즐거운공인중개사무소** 대표공인중개사 유재관 010-6495-3787

등록번호 북구29170-2019-00097

광주 북구 임동480 내주공아파트 옆 동운고가입구